

체류형 관광여행 '강진에서 1주일 살기' 인기

예약 시작 한달 만에 500여 명 예약 완료 청자 컵 만들기·음반만들기 무료 제공 등

강진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바다)에서 추진하는 생활관광사업인 '강진에서 1주일 살기'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진에서 1주일 살기는 참가자가 6박 7일간 농가에서 생활하며 농촌 체험과 강진의 문화, 관광지 등 다방면을 체험 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힐링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8일부터 예약 접수를 시작했으며 3월 4일까지 총 190여 팀, 500여 명이 예약 완료 했다.

참여 신청은 1팀 당 최소 2명 이상, 최대 4명 가능하며, 1인당 23만 원이다. 참가자에게는 조식 6회와 석식 2회와 청자 컵 만들기과 나만의 음반 만들기 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강진군 관내 각종 관광시설 입장료와 체험료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강진에서 1주일 살기 홈페이지(www.fuso.kr)를 통해 가능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예약 취소 및 사업이 잠정 중단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및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올해 첫 참가자인 김귀수씨는 "사진작가로 우리나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촬영을 하는데 강진에서 좋은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어 강진에서 1주일살기를 신청하게 됐다"며 "강진에 머무는 동안 강진의 좋은 풍경도 담고 푸짐한 인심을 느끼고 싶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강진군과 문화관광재단은 농가에 체온계와 손소독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체험객에게

는 발열 체크는 물론 손소독제, 마스크 등이 포함된 방역 키트를 배부할 예정이다.

김바다 대표는 "강진의 대표적인 관광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강진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강진=김영일기자

알리는데 힘을 줄 것"이라며 "철저한 방역 활동 강화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 힐링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군, 마당개·길고양이 중성화 등 동물복지 지원 18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

해남군이 마당개(실외사육견)과 길고양이 중성화, 동물등록 지원 등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해남군은 마당개 중성화수술 119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95두, 반려견 등록 활성화 위한 동물등록 지원 96두를 실시할 계획이 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서 사육하는 5개월령 이상의 암컷 개이며, 지원금액은 40만원이다. 미등록 및 외장형 동물등록의 경우 수술 시 내장형 동물 등록도 병행한다.

길고양이 중성화는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자생하는 2kg 이상의 길고양이며 임신·수유중인 고양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물등록 지원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가 대상이다. 내장형 등록만 가능하며 등록비용 4만원 중 3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사육·서식장소 소재 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으며, 연령·소득·포획 협조 여부 등을 반영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발생 억제와 생태계의 안정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과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사육·서식장소 소재 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으며, 연령·소득·포획 협조 여부 등을 반영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완도군 '소상공인 대상 마케팅 홍보비 지원'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시장의 고속 성장과 경기 불황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 사업'은 2021년 1월 1일 이전 완도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마케팅 활동에 발생한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마케팅 활동 인정 범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해당된다.

온라인은 오픈마켓(옥션, G마켓, 11번가 등), 중개 플랫폼(요기요, 배달의민족 등) 수수료, 소셜 마케팅 등이며, 오프라인(플래카드, 전단지, 관촉물 등) 제작비와 신문 광고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3월 7일부터 완도군청 경제교통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선착순 접수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구비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경제교통과(061-550-5553)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3월 7일부터 완도군청 경제교통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선착순 접수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구비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경제교통과(061-550-5553)로 문의하면 된다.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편백소금집에서 힐링 체험하세요"



장흥군 편백숲 우드랜드 안에 자리한 편백소금집이 힐링의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우드랜드 편백소금집은 적외선과 천연염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휴양 시설로 소금찜질방, 소금해독방, 황토방, 소금단전호흡방, 편백 반식욕방 등 다양한 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치유시설로 마련된 토타방 효소찜질은 편백

의 토타방과 쌀겨, 미생물을 발효시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한다.

토타방 효소찜질은 신진대사 촉진과 피부미용, 성인병 예방, 체내 독소 배출 등 다양한 효과가 있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가 높다.

현재 우드랜드 편백소금집은 거리두기 안화로 오후 11시 이용가능하고, 이용객의 편

의를 위해 대표소에서 소금집까지 셔틀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편백소금집 보안사업으로 천정을 편백으로 바꾸는 등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군민과 관광객들이 우드랜드 편백소금집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한 체험을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장흥군,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개최

장흥군은 지난 3일 장흥경찰서 목민관에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흥군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는 장흥군과 장흥경찰서, 장흥교육지원청, 전남 북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구성됐다.

주요 활동으로는 지역 학대 피해(의심) 아동과 피해사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아동학대 사건의 80%는 가정 안에서 발생하고 학대행위자의 76%가 보호자이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더 높아졌다.

이에 장흥군은 지역사회 중심의 면밀한 관찰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을 인지하여 2021년부터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왔다.

진도군, 민원봉사과에 '민원 상담 창구' 개설·운영...편의 증진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
신뢰 행정·적극적인 소통 행정

진도군이 민원인과 편리한 소통을 위해 민원봉사과에 지난 2월말부터 '전용 민원 상담 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8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군청 1층 로비에서 운영하던 기존의 민원상담실을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선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부서별 방문이 통제되어 많은 불편을 겪은 군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신뢰 행정과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모든 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



진도=조상용기자

하고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해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